

朱熹의 文道關係論

李 相 圭*

<目 次>

- | | |
|-----------------|------------------|
| I. 緒 論 | IV. 文以貫道論에 대한 批判 |
| II. 文從道出論 | V. 結 論 |
| III. 文從道出論의 局限性 | |

I. 緒 論

南宋初年の 理學大家인 朱熹는 비단 北宋以來의 理學을 集大成 했을뿐만 아니라, 또한 文學方面에 대해서도 造詣가 깊었고, 詩 詞 賦 文에 대하여 많은 研究가 있었다. 그리하여 古書方面의 注釋에도 燦爛한 成果를 거두었다. 그는 道學思想의 觀念으로 文學을 論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著述을 하였던 바, 감히 일대의 大家로 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朱熹는 唐代의 韓愈, 柳宗元 등이 提唱한 道學家들의 文學觀을 基礎로 하여 이를 繼承하여 발전시켰으며 韓愈의 “文以載道”는 잘못된 觀點이라 여겨 “文從道出”, “文道合一”의 文學主張을 하였다. 그는 「道는 바로 「文」의 本이요, 「文」은 바로 「道」의 末이라고 하여, 文章에 있어서는 반드시 明理를 重視하는 것이 좋은 文章이며, 「道」에 充實하여야 만이 「文」은 비로소 流暢有力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無用의 文章이라고 하였고, 明理는 또한 반드시 漸進적으로 努力하여 爭取하는 過程을

* 靈山大學校 HOTEL 觀光學部 中國語科 教授

거처야 만이 獲得할 수 있다고 보았다. 朱熹의 文道關係論을 좀 더 正確히 把握하기 위하여 本 論文은 上述한 文學觀點을 論述하고 더불어 文從道出論의 局限性을 分析하고, 더불어 文以貫道論의 批判에 대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II. 文從道出論

中國文學上에 있어서, 「文」과 「道」의 關係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注目を 받아왔다. 일찍이 先秦文學 《詩經》중의 雅와 頌은 華麗한 形式技巧을 採取하여 지어졌다. 《詩經》을 根幹으로하여 계속 이어진 楚辭形式, 先秦名家의 散文著作 및 漢賦와 樂府詩 또한 文章을 細密하게 가다듬어 韻律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內容上에 있어서도 진정한 實意에 充滿되도록 하고, 聖賢의 經典教誨를 抽出하여 國家民族의 歷史를 詳細히 敘述하거나, 일반백성의 風俗文化 혹은 朝廷의 戰功등을 描寫하였다. 그러나 兩晉이후부터 文人들은 駢文과 律詩를 重視하기 시작하여, 다듬어 修飾하고 典故를 사용하기 좋아하였는데, 바로 南北朝時代의 顏延之、謝靈運、鮑照、範曄、謝朓、沈約 등이 이를 繼承하였으며, 또한 文章을 矯揉造作하는 氣風이 세상에 盛行하였다. 이로 인하여 詩歌를 서로 贈答하는 것으로 變質되었고, 文章의 技巧에 따른 誇示로 遊戲로 轉落하였으며, 진정한 藝術感情의 要求와 表現이 없었다. 동시에 이를 따라 興起된 것이 山水文學인데, 晉代에서의 左思, 王羲之등이 있다. 陶淵明의 作品속에는 이미 山水文學의 形態가 나타나 있다. 단, 陶淵明은 自然에 依하여 單純한 風景의 描寫뿐만 아니라, 現實의 思想感情을 表現하여 그의 高尚한 人格을 作品에 依託하였다. 《文心雕龍》 <明詩篇>에 말하길:

“宋初文咏, 體有因革, 莊老告退, 而山水方滋, 麗采百字之偶, 爭價一句之奇, 情必極貌以寫物, 辭必窮力而追新.”

“송대초기 文章의 詩篇은 그 체재상으로는 前代를 因襲하여 혁신된 바

가 있었으니, 장주노담의 虛玄風潮는 점차로 퇴조하고, 산수를 대상으로 하여 읊는 시의 풍격이 변성하여 갖가지 미사여구를 쓴 기이한 대귀가 가치있다고 앞다투어 말하였고, 情節上에는 반드시 사물의 실질내용을 문장에 묘사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새로운 풍조를 추종하였다.”

당시 山水文學家를 同伴해서 發展을 이룬 또 하나의 支流는 바로 宮體詩의 色情文學이었다. 이런 종류의 文學內容은 女人의 容顏衣服 心靈舞態 및 睡時酒後의 情景를 集中的으로 描寫했는데, 심지어 肉感적인것을 大膽하게 表現했다. 더욱이 男色을 描寫함에 있어 實在로는 放蕩, 淫亂, 墮落이 極點에 다다랐다. 이런 文學發生의 主要原因은 當時의 文學을 掌握한 荒淫한 君主貴族때문이었다. 이런 作品의 內容은 바로 그들의 放蕩한 生活에 관한 것으로 宋에서 隋까지의 二百年間은 君主臣下 대부분이 酒色에 깊이 빠져있어, 風俗은 疲弊毀損되고 生活은 奢淫한 程度가 매우 심했다.

山水文學 이후 色情文學이 盛行한 이래, 先秦聖賢의 道는 곧 文學範疇의 밖으로 排擠당했다. 南北朝와 隋代의 民歌中에 孔·孟의 倫理思想은 털끝만큼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시기의 文學形式은 이러한 氣風의 盛行으로 인하여 思想적 內容은 오히려 萎靡不振하였다.

《文心雕龍》<序志篇>의 “文心之作也本乎道”는 바로 「自然之道」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但, 劉勰이 宗經을 推崇하여 그가 말한바의 「恒久之至道」<宗經篇> 및 「聖因文而明道」<原道> 등은 後世의 載道說과 더불어 朱熹의 文道合一論과 깊은 연관이 있다.

唐代에 이르러 「文」과 「道」의 關係는 韓愈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注目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道統과 文統의 繼承人으로 道統上에 있어 儒道에 相容하지 않는 釋道思想을 極力排擠하였다. 文統上에 있어서 그는 經書를 尊崇하고 散文을 중시하였다.

“愈之爲古文，豈獨取其句讀，不類於今者耶？思古人而不得見，學古道則欲兼通其辭。通其辭者，本志乎古道者也。”¹⁾

1) 《韓昌黎集》卷五，〈題歐陽生哀辭後〉。

“韓愈의 文을 위한 것이 어찌 한 구절만을 취하여서 지금의 것과 다르다고 할 것인가? 古人을 생각하나 볼 수 없으니, 古道를 배워서 그 말하는 바에 통하고자 하였으며, 그 말하는 바에 통하려면 古道の 뜻을 두어야한다.

宋代의 文學思想은 完全히 韓愈의 學說을 繼承하였고, 후에 道統의 극단을 치달아 일반적인 文學의 價値를 否定하였다. 그리하여 宋代의 理學家들은 韓愈에 대해서까지도 酷評을 가하였다. 周敦頤의 《通書文辭》卷二十八에 “文所以載道也。”라 하였고, 二程은 말하기를 “退之晩年爲文所得處甚多。學本是修德, 有德然後有言, 退之却倒學了。”²⁾이라 하였으며 또한 말하길 “韓子之學華, 華則涉道淺。”이라 하여 完全히 文學의 價値를 否定하였고, “問作文害道 否? 曰: 害也……”³⁾라 하여 文章을 짓는 것은 바로 害道하는 것이라 여겨서 그것을 짓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朱熹는 文學의 根本觀念에 대하여 「文以載道」의 基礎위에 한걸음 더 나아가 「文自道出」의 論點을 深化시켰다. 그는 文과 道의 關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說明을 하였다.

“文皆是從道流出, 豈有文反能貫道之理! 文是文, 道是道, 文只如吃飯時下飯耳. 若以文貫道, 却是把本爲末, 以末爲本, 可乎?...”⁴⁾ 文은 모두 道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찌 文이 道를 貫할하게 되는 상반된 이치가 있을것인가! 文은 文이요, 道는 道이니, 文은 단지 밥을 먹을때 반찬과 같은 것이다.

그는 文章은 飯의 菜肴이고 「道」는 바로 배고픔을 채워주는 米飯으로 여겼으며, 또한 文을 道의 枝葉으로 譬喩하여 그는 「文」은 모두 「道」로부터 나온다고 主張하였다. 후에 그는 蘇軾의 文章은 正道를 害한다고하여 다음과 같이 批評하였다.

2) 《二程遺書》卷十.

3) 同上.

4) 《朱子語類》卷一百三十九.

“今東坡之言曰：吾所謂文，必與道俱。則是文自文，而道自道，待作文時，旋去討個道來放裏面。此是它大病處。只是它每常文字華妙，包籠將去，到此不覺漏逗。說出他根本病痛所以然處，緣他都是因作文却漸漸說上道理來，不是先理會得道理了方作文，所以大本都差。”⁵⁾

“東坡는 말하길, 내가 말하는 文이란 반드시 道를 함께 갖춘 것이다. 즉, 文은 文이요, 道는 道이니, 文을 지으면서 道를 논하여 안에 놓는 이런 것은 큰 병폐이다. 오직, 그것은 문자를 화려하고 기묘하게 꾸며 감싸서 병폐에 머무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병폐가 된 원인을 말하면, 그것은 모두 文章을 짓고 점차적으로 道理를 말하는 것이니, 먼저 道理를 깨우치고 文章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는 비단 蘇軾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唐·宋兩代古文運動의 領袖인 韓愈와 歐陽脩에 대해서도 滿足하지 못하였다. 《文集》卷七十의 <讀唐志> 中에 말하길:

“必曰我所謂文，必與道俱，……則道之與文，吾不知其果爲一耶？爲二耶？……則文王、孔子之文，吾又不知其與韓·歐之文果若是其班乎，否也！嗚呼，學之不講久矣，習俗之謬，其可勝言也哉！”

“내가 文이라 말하는 것은 반드시 道를 더불어 갖추어야 한다. ……나는 道와 文은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다. ……즉 文王, 孔子의 文을 나는 또한 韓愈, 歐陽脩의 文과 같은 班列인가? 알지 못하겠다. 아니다! 아! 이를 배우고도 道를 말하지 아니한 것이 오래 되었도다. 習俗이 잘못되어 말만 앞세우게 되는구나!

朱熹는 비록 宋代의 道學大家이지만, 文學에 대해서도 聖賢의 道를 中心으로 삼았다. 때문에 根本이 갖추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文章이 비록 잘 수식되어 있더라도 구부러진 나무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語類》中에 말하길:

5) 《朱子語類》卷一百三十九

“大意主乎學問以明理，則自然發爲好文章，詩亦然……。

有一等人專注於爲文，不去讀聖賢書。”

“……文字依傍道理 故不爲空言。”⁶⁾

“대체적으로 학문은 理를 밝히는 것을 주로하면 필연적으로 좋은 문장이 나오게 된다. 詩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文을 중시하고 聖賢들의 글을 읽지 않는다. ……文字는 道理에 의거하여야만 비로소 空言이 되지 않는다.”

朱熹는 「道」에 充實한다면, 文章은 自然히 流暢·有力하여서 그 意義를 갖추게 된다고 強調하였다. 그래서 그는 <讀唐志>에 말하길:

“夫古之聖賢，其文可謂盛矣，然初豈有意學爲如是之文哉？有是實於中，則必有是文於外。如天有是氣，則必有日月星辰之光耀，地有是形，則必有山川草木之行列；聖賢之心既有是精明純粹之實，以旁薄充塞乎其內，則其著見於外者，亦以必自然條理分明，光輝發越而不可揜蓋……”⁷⁾

“무릇 옛 聖賢들의 文은 盛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학문에 뜻하니 어찌 이와 같은 文이었겠는가? 이는 中에 충실함에 있으니, 반드시 文은 밖에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天에 氣가 있으면 곧 日 月 星 辰의 밝은 빛이 있게되고, 地에 形이 있으면, 곧 산천초목의 배열이 있게된다. 聖賢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러한 순수함에 충실함으로써 다른 부족함을 그안에 메꾸어서 그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게되어 自然히 條理가 분명하여 가면 갈수록 찬란히 빛나고 덮을 수 없도다.

그는 또한 말하길:

“不必託於言語，著於簡冊，而後謂之文；但自一身接於萬事 凡其語默動靜，人所可得而見者，無所適而非文也。”⁸⁾

“반드시 언어(미사여구)에 의탁하지 않고, (道에 입각하여) 간단히 서술

6) 《朱子語類》卷一百三十九.

7) 《朱子文集》卷七十.

8) 同上.

하여야 文이라 할 수 있다. 단지 一身으로부터 萬事に 접하면 무릇 그 언어는 생동감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바로써 나타나는 것은 적합한 바가 없어 文이 아니다.

朱熹는 後世의 文章을 列擧하여 叙述하길, 時代가 변하여 뒤로 갈수록 점점 더 道에서 멀어진다고 恨歎하였다. 그의 文論方面에 있어 가장 重要한 觀點은 聖賢之道를 充實히 探求하는데에 있다고 보았으며, 아무리 文字를 華麗한 技巧을 써서 「文」을 지었어도, 「文」이 「道」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稱할 수 없다고 하였다.

朱熹의 文自道出說과 相通되는 것이 그의 文以明理論인데, 그는 일찍이 理學家인 周敦頤를 推崇하였다. 그는 《太極圖說》과 《通書》 등을 著作하여 理學을 하나하나 整理하여 詳細히 解析하였다. 朱熹는 또한 張載 程顥·程頤를 崇仰하여 그들의 學說을 하나로 融合하였고, 더불어 또한 範圍를 擴大하여 邵雍과 司馬光의 兩人的 學說을 包含시켜, 北宋理學을 集大成하였다. 朱熹는 그의 理學思想의 基盤위에 文學觀點 또한 明理를 重視하였는 바, 그는 文章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義理를 充實히 하는 데에 致力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말하길

“義理既明，人能力行不倦，則其存諸中者，必也光明四達，何施不可。發而爲言，以宣其心志，當自發越不凡，可愛可傳矣。今執筆以習研鑽華采之文，務悅人者，外而已，可耻也矣。”⁹⁾

“義理가 분명하고, 힘써 행동함에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으면, 곧 모든 일에 中和가 자리잡아 반드시 光明四達하니, 어찌 시행함이 不可하리오. 義理를 내세워 말을 하면 그 심지가 마땅함으로써 당연히 범상치 않아 사랑받고 전하여진다. 지금의 미사여구를 배워 익혀서 집필한 文으로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위에서 그는 義理에 입각한 文學의 重要性을 強調하여 다음과 같이 말

9) 《朱子語類》卷一百三十九

하였다.

“諸詩亦佳，但此等亦是枉費工夫，不切自己底事，若論爲學，治己以治人，有多少事。至如天文地理，禮樂制度，軍旅刑法，皆是着實有用之事業，無非自己本分內事。古人六藝之教，所以游其心者，正在於此。其與玩意於空言，以較工拙於篇牘之間者，其損益相萬萬矣。”¹⁰⁾

“여러 詩들이 훌륭하다지만 이런 것들은 역시 쓸모없는 일이고, 자신이 갖고 닦아야 할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배움을 논한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고서 남을 다스려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天文地理, 禮樂制度, 軍旅刑法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실용적인 일이며, 자신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 古人의 六藝의 가르침은 그 마음에 노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 空言으로 허송세월하고 졸속으로 책을 짓는 것은 서로 손해가 많은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文을 짓는데 있어서는 義理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는바, 만일 文人들이 根本을 버리고, 末端을 취하거나, 義理를 忽視하여 文詞를 입맛대로 追求한다면, 이는 곧 枉費工夫라 하였다. 朱熹는 韓愈의 文章은 議論이 바르고 規模는 크며, 柳宗元의 文章은 일을 論함에 있어 比較적 細密하다고 여겼다.

“先生方修韓文考異而學至，因曰：韓退之議論正，規模闊大，然不如柳子厚較精密。”¹¹⁾

“주희는 韓文考異에서 學至한 것을 정리하길..... 韓愈의 議論은 바르고, 규모는 넓고 크다. 그러나 유종원과 같은 정밀함은 없다.

그가 晩年에 쓴 <韓文考異>는 功力이 깊고 深奧하여 後世文人들에게 學文의 途徑을 이끌어주게 되었다. 그는 當時의 文章氣風을 評論하여 《語類》¹²⁾ 卷一百三十九中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 同上

11) 《朱子語類》卷一百三十九

K C I

12) 此後本論文上寫的《文集》和《語類》就是《朱子文集》和《朱子語類》。

“今人作文，皆不足爲文，大抵專務節字，更易新好生面辭語。至說義理處，又不肯分曉。”

“今인의 文을 지은 것은 모두 文이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대체적으로 오로지 글귀에만 힘써서 새롭고 낯선 어휘를 좋아한다. 義理를 말함에 있어서는 또한 분명히 깨우치려 하지 않는다.

위에서 朱熹가 當時文章의 氣風을 評論한 目的은 西昆文派에 대하여 一針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본래 西昆文派의 領袖인 楊億, 劉筠과 錢惟演이 지은 詩文들은 晚唐의 李商隱을 본받아 華麗雕飾한 形式技巧을 採取하여 오히려 詩文의 思想內容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詩歌를 서로 贈答하는데에 치중하여 盲目적으로 追從하였다. 이러한 傾向은 뒤로 갈수록 더욱 심하여졌다.

이러한 文學風氣는 當時의 文壇上에 三四年동안 盛行 하였다. 그래서 歐陽脩는 楊, 劉風采가 天下를 振動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로 보건데 그때의 西昆派勢力이 얼마나 盛行하였는지 그 程度를 알 수 있다.

西昆風采가 當時에 비록 盛行하였으나, 一般적인 文學思想을 가지고 있는 文人들은 이러한 風潮를 反對하였다. 理學家인 石介와, 古文家인 王禹偁, 範仲淹, 柳開 등과, 詩人인 寇準, 林逋, 魏野 등은 모두 西昆派에 대하여 혹독한 批評을 加하였고, 朱熹는 理學家와 文學家の 立場에서 이를 批判하고 否定하였다.

清代學者들은 항상 宋代理學家의 言論을 玄虛空泛이라고 여겨 비웃었지만, 朱熹의 理氣論과 心性論은 條理가 分明하여, 現代西方哲學中の 宇宙論 및 形上學과 서로 비교하여도 그 思想內容에 있어서 조금의 遜色이 없다.

朱熹는 理學上에 있어 義理를 講究하였지만, 文學上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義理를 重視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文學上의 義理를 研究하는 것은 이들의 장난이 아니고, 學者가 반드시 漸進적인 努力을 거쳐야 만이 비로소 獲得할수있다고 지적하였다.

朱熹는 義理를 講究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飢食渴飲하는 姿勢로 평상시

의 일처럼 보아야 하고, 만약에 談高說妙하면 바로 懸空揣度에 치우쳐서 文章은 道에서 멀어진다고 여겼다. 朱熹는 또한 義理의 論據는 사람이 直接 만질 수 없고, 漸進的인 努力을 거쳐도 頭序를 쉽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그는 온 힘을 다하여 不斷히 자기자신을 省察하여야 만이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고 남들에게 권했다.

朱熹가 쓴 《朱熹語錄》은 원래 白話文을 爲主로하여 쓰여진 文體로 佛敎翻譯文學의 影響을 받았다. 宋代의 理學家들은 語錄體를 提倡하여 使用하였는데 朱熹는 周敦頤, 邵雍, 程顥, 程頤, 張載등의 理學思想을 發揚光大시키고 더불어 그들의 學說을 涉獵하여 理學을 集大成하였다. 그는 그들의 思想을 語錄體를 통해서 傳道와 敎學에 힘썼다. 그는 시를 지을 때에 漢·魏의 字字句句, 平仄高下의 형식을 遵從하였다. 또한 그는 哲學思想을 詩中에 融合시켜, 形式에 치우치지 않고 簡略히 하여 文字의 어려움을 피하였다. 이러한 그의 義理 道에 입각한 詩文은 「舊瓶裝新酒」의 契機를 열었다.

Ⅲ. 文從道出論의 局限性

前章의 分析에 根據하여 朱熹의 文從道出論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그중에 存在하는 바의 문제는 어떠한 것인지 探究해 보기로 한다. 「文從道出」, 「文道合一」은 孔子의 “有德者 必有言”¹³⁾의 論理를 根據로 하고 더불어 그를 組織化한 후에 그의 文學論을 構成한다. 그러면 “有德者 必有言”의 觀點은 論理의 必然性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德」은 「言」의 必要充分條件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偉大한 人格으로서 偉大한 文學作品을 生産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¹⁴⁾ 「德」을 表現하기

13) 《論語》卷十四, <憲問> 篇

14) 黃繼持, <“文”與“道”“情”與“性理學家之文藝思想”, 《崇基學報》7-2(1968.5) pp.189-190.

위하여 「言」하게 된다. 이는 곧 偉大한 人格을 가지고 創作하게 되면, 偉大한 作品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轉化過程을 거쳐 「語言의 形象化」를 함으로서 文學적 本質條件을 滿足시키게 된다. 이러한 觀點上에서 朱熹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然言或可少，而德不可無。有德而有言者常多，有德而不能言者常少。學者先務，亦勉於德而已矣。”¹⁵⁾

“말하는 것이 혹 적을지라도 德을 쌓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德을 갖추고 言行을 하는 자는 많으며, 德이 있으나 言行을 할 수 없는 자는 적다. 배우는 사람은 먼저 德을 닦는 데에 힘써야만 한다.

朱熹는 「德」을 쌓아 이를 실천하는 것을 매우 重視하였으며, 文章이란 「德」을 基礎로한 表現이어야하며, 文章을 쓰기 위한 修飾技巧은 「德」을 疏忽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그의 理學的인 觀點에서 출발하여 「道」는 存在의 法則이고, 文章은 氣의 作用에 의해서 表現되는 相對的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文從道出」 理論에 根據하여 「道」가 아닌 「文」의 모든 文學的 存在는 모두 否定되었다. 하지만 그의 文道論은 단지 「道」의 存在만 있고, 「文」은 疏忽히 하였기 때문에, 現實중의 모든 文學領域을 說明하는데에는 약간의 무리한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IV. 文以貫道論에 대한 批判

朱熹의 “文從道出” 理論은 孔子의 “有德者 必有言”¹⁶⁾ 이라는 말에 根源을 두고 있다. 孔子의 이 말은 일찍이 이미 韓愈의 “實之美惡，其發也不辨”¹⁷⁾, “養其根而俟其實，加業膏而希其光。根之茂者其實遂，膏之沃者其

15) 《周濂溪集》卷六

16) 《論語》卷十四，〈憲問〉篇

光曄”¹⁸⁾이라는 것과, 歐陽脩의 “道勝者文不難而自至”¹⁹⁾ “道純則充於中者實, 中充實則發爲文者輝光?”²⁰⁾ 그리고 또 蘇軾의 “山川之有雲, 草木之華實, 充滿勃鬱而見於外”²¹⁾를 繼承하였다. 만약에 朱熹의 理論이 累積되어 밖으로 表現될 수 있다고 理解한다면, 위에 列學한 사람들의 觀點과 결코 큰 差異가 없다. 그렇지만 古文家들도 理論上의 根據를 찾지 못했고, 단지 뿌리깊은 樹木이 비로소 茂盛한 나뭇잎이 있다는 식의 比喻를 사용해서 論證할 수 있었다. 그러나 朱熹는 「理」는 萬物의 本源이라는 이러한 哲學觀點을 基礎로 하여 古文家들의 文學論에 대하여 批判을 하였다.

韓愈의 門人인 李漢은 《韓昌黎集·序》中에서 韓愈의 主張에 대하여 「文者, 貫道之器也」라고 概括하였다. 이는 韓愈文論의 중심으로 韓愈가 倡導한 古文運動 理論基礎의 文道論思想으로 삼았다.

韓愈의 文道論에 대하여 朱熹는 두 가지 方面으로 批判하였다. 첫 번째는 「道」에 관한 것으로, 韓愈自身이 이미 「文」과 「道」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는 두 가지를 더불어 취하여 堅持한다는 主張을 하였다. 그렇지만 實際上으로는 韓愈는 平常時에 힘써 文詞에 着眼하여, 一生의 精力을 또한 文詞中에 投入하였다. 그가 主張하는 바의 「道」는 「佛, 老」思想을 排斥하고, 儒家思想을 宣揚한 것일 뿐이었고, 「道」에 대하여는 또한 透徹한 理解가 없었다. 비록 그는 儒家의 道를 繼承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 朱熹가 보기에는 그는 道統한 사람의 隊列에 놓을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文·道의 關係로, 韓愈의 「文以載道」의 觀點에 대하여 朱熹는 이미 「古人好道而及文, 韓退之學文而及道」이라고 批評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道必藉文以懸」의 態度는 더욱 朱熹의 「文須因道而成」의 主張과 서로 對立된다.

「文以貫道」에서 文章을 主體로 한다면, 이것은 「道」가 바로 文章에 寄

17) 《韓昌黎集》卷二, <答尉遲生書>.

18) 《韓昌黎集》卷三, <答李翊書>.

19) 《歐陽脩全集·居士集》卷四十七, <答吳充秀才書>.

20) 《歐陽脩全集·居士外集》卷十八, <答祖擇之書>.

21) 《東坡前集》卷二十四, <南行集叙>.

託되어 到達되는 客體對象이 된다. 때문에 朱熹는 韓愈의 「文」과 「道」가 서로 分離되고, 甚至於是 本末이 顛倒되었다고 批判하였다.

韓愈는 비록 表面上으로는 「爲道而學文」을 倡導하였는데, 사실은 오히려 文章을 짓는데 精力을 集中하였다. 그러나 歐陽脩의 繼承者인 蘇軾은 道家 儒家範疇의 道の 概念을 離脫되었기 때문에 聖人이 되는 것을 目標로 삼아 六經을 「求道」의 方法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文以貫道」說을 發展시켰고, 더불어 「因文及道」의 可能性에 대하여 說明하였으며, 歐陽脩가 提出한 바의 “吾所謂文必與道俱”²²⁾의 主張에 새로운 意味를 賦予하였다.

朱熹는 「文由道流」의 文道一元論의 立場에 서서, 文道二元論의 貫道主張에 대하여 批判하였다. 朱熹의 古文家들에 대한 批判의 主要根源은 「文道一貫」과 「文以貫道」의 두개의 觀點간의 差異이다. 古文家들은 비록 「道」를 提倡하였지만, 오히려 意識 혹은 無意識적으로 文章은 獨立性을 갖고 있다고 認定하였고, 甚至어 「文」을 더 중시하여 좋은 文章을 지으려 노력하였으나, 「德」을 表現하는 것을 直接的인 目的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朱熹의 「文道合一」의 主張은 文章을 道德에 從屬시켰다. 文從道出說은 「美」는 善에서 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文學領域으로 삼는 「美」는 獨立적으로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朱熹가 말하는 바의 道는 결코 善 혹은 道德에 局限되지 아니하고, 文學의 內容과 作家의 人格 속에 「道」가 반드시 包含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제까지도 연관된다. 실제로 偉대한 生活은 偉대한 文學을 낳고, 平凡한 生活은 偉대한 文學을 生産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朱熹의 「文從道出」論은 그 自身の 道の 實踐觀念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朱熹의 古文家들에 대한 批判한 根源을 文學史發展上에서 考察해보면, 唐代의 古文運動은 六朝의 駢儷文과 形式主義의 文風에 대한 改革이었으나, 結果적으로 새로운 形式主義가 원래의 形式主義를 代替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唐 末年에는 다시 唯美主義風氣가 興盛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2) 《東坡後集》卷十六, <題歐陽文忠公文>.

北宋의 歐, 蘇가 일으킨 古文運動은 宋 初의 날로 심해지는 形式主義詩文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北宋 末 때에는 南宋 初 形式主義文風이 다시 文壇에 漫延되었다. 形式主義에서 반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朱熹와 古文家들의 見解는 一致하였고, 그들 모두 文風을 改革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을 認識하였다.²³⁾ 그러나 古文家들의 改革運動은 根本적으로 形式主義文風의 卷土重來를 막을 수 없었고, 이것은 바로 古文家들이 가지고 있는 弱點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朱熹는 「文從道出」 그리고 「文道合一」 理論에 建立된 道의 意義를 窮究하였고, 古文家들의 理論에 대하여 一貫되게 批判하였다.

V. 結 論

朱熹는 「道」가 행하여지는 시대는 文章이 道理에 合當하고 亂世는 世俗的인 情에 汚染되어 文風이 美辭麗句의 修飾이 많아 輕薄하게 된다고 하였다. 朱熹의 文學思想은 北宋理學家의 思想과 唐代의 古文運動家들의 主張을 發展시켰다. 일반적으로 「道」는 古文運動家의 立場에서 보면 儒家의 一般的인 仁義를 말하나 理學家의 立場에서는 純粹한 道德, 心性의 抽象的인 概念까지도 包含한다. 그는 文章을 지을 때 아무리 華麗한 技巧을 써서 創作하였다 해도 「文」이 「道」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없으며, 될 수 있는데로 道에 充實하고 修飾하지 않은 自然之道를 나타낸 詩經, 楚辭와 같은 文章이 훌륭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朱熹는 六朝와 唐初에 盛行한 駢儷文體나 晚唐의 四六文과 宋 初의 西崑體등의 形式主義와 唯美主義에 대하여 認定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文」은 「文」이요, 「道」는 「道」이기 때문에 「文」으로써는 貫道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朱熹는 文道關係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朱熹는 「文」과 「道」의 關係를 「文」은 米飯의 반찬이요, 「道」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米飯이라 譬喩하였는데, 이는

23) 黃坤, <道學家論文與文學家論道>, 《文學遺產》1986年 第二期, pp.70-71.

「道」는 「文」의 根本이요, 「文」은 「道」의 枝葉이기 때문에, 文章을 지을 때는 반드시 「道」를 追求하는 姿勢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聖賢之道와 自然之道를 基盤으로 한 文章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그의 文道論은 단지 「道」의 存在만을 너무 強調하여, 文章을 「道」에 從屬시켜 疏忽히 하였기 때문에, 現實中的 모든 文學영역을 판단하는 데에는 理解하는데 약간의 限界가 있다고 여겨진다.

< 參考文獻 >

- 程顥·程頤, 《二程全書》(臺北: 中華書局, 1964).
- 周敦頤, 《周子全書》(臺北: 中華書局, 1978).
- 朱 熹, 《朱子文集》(臺北: 商務印書館, 1965).
- 周榮村, 《朱子思想的淵源》(臺北: 中華學苑第四卷), 1969.
- 王更生, 《文心雕龍研究》(臺北: 文史哲出版社), 1979.5.
- 沈 謙, 《文心雕龍之文學理論與批評》(臺北: 華正書局), 1981.5.
- 顧 俊, 《文心雕龍研究·解譯》(臺北: 木鐸), 1983.9.
- 明倫出版社編輯, 《柳宗元詩文集評》(臺北: 明倫出版社, 1971.10).
- 韓 愈, 《韓昌黎集》(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8.
- 周敦頤, 《周子全書》(臺北: 中華書局 四部備要本), 1978.
- 黎靖德編, 《朱子語類》(臺北: 正中書局), 1970.
- 張 健, 《朱熹的文學批評研究》(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75.
- 錢 穆, 《宋明理學概述》(臺北: 學生書局), 1977.
- 吳 康, 《宋明理學》(臺北: 華國出版社), 1973.
- 羅根澤, 《中國文學批評史》(臺北: 學海出版社), 1978.
- 楊天石, 《朱子及哲學》(北京: 中華書局), 1983.
- 張立文, 《朱熹思想研究》(上·下冊)(臺北: 谷風出版社), 1986.
- 李修生, 《中國文學史綱要》(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 崔眞奭, <朱子的人心道心解釋>, 《哲學論集》第7輯, 西江大學校, 1994.
- 黃繼持, <文與道情與性理學家之文藝思想>, 《崇基學報》1968.5.
- 郭紹虞, <朱子之文學批評>, 《中國文學批評家與文學批評》第二冊(臺北學生書局), 1971.
- 錢 穆, <談朱子的論語集注>, 《孔孟月刊》第六卷第五期 1968.

<中文提要>

總觀朱熹之文道關係論, 在宋代文學思想走到了道教的極端, 几乎全盤否定文學價值的關鍵時刻無疑是拯救文學的及時雨. 他特別強調文章的「道」, 認為「道」即 義理是為文真正的本, 「文」即文采是文章的末, 本末不能倒置. 文章義理充實最重要, 只追求文詞而忽視義理是徒勞的觀點. 今天也借鑒作用. 不是“文以載道”而只是“文從道出”, 因此無法解釋現實中的所有文學, 否定了非道之文的存在, 不能自圓其說. 在事實面前現出破綻. 他對古文家批判如上文所述也具有現實意義, 現須再贅言.

주제어: 朱熹, 文道關係論, 文從道出論, 文以貫道論, 古文運動, 聖賢之道, 理學思想